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9.28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메타 뮤즈가 보여준 범용 에이전틱 AI의 경쟁법칙

범용 에이전틱 AI의 경쟁축, 모델 성능을 넘어 가격·사용자 접점·플랫폼으로

- 메타 뮤즈는 최상위 AI 모델 대비 뚜렷한 성능 우위가 없음에도 출시 직후 앱스토어 최상위권에 오르며 빠르게 확산
- 모델 간 사용자 체감 성능 차이가 낮아지면서 낮은 가격과 사용자 접점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
- 아마존의 뮤즈 접근 차단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토파일럿은 기존 플랫폼이 에이전트의 서비스 접근 범위와 배포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에이전틱 AI는 사용자당 추론량을 늘려 GPU뿐 아니라 CPU·메모리·네트워크 등 추론 인프라 전반의 중요성을 높일 전망

- 뮤즈의 초기 흥행은 범용 에이전틱 AI의 경쟁력이 모델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뮤즈의 기반 모델인 Muse Spark 1.3은 장시간 에이전트 작업과 코딩 성능이 이전 모델보다 크게 개선됐지만 최상위 경쟁모델보다 뚜렷하게 앞서지는 않는다[도표1]. 그럼에도 뮤즈는 9월 8일 출시 이후 12일 만에 280만건의 설치를 기록했고 미국 앱스토어 1위까지 올라섰다. 미국 모바일 일간활성사용자도 출시 초기 64만2천명으로 ChatGPT의 출시 후 동일 시점 23만1천명을 크게 웃돌았다. 모델의 절대 성능보다 성능 격차를 사용자가 얼마나 체감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뮤즈의 빠른 확산은 개선된 성능과 메타가 이미 확보한 소비자 접점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메타는 뮤즈 이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AI를 대규모 사용자에게 제공해 왔다. 뮤즈에서는 이메일 전송과 여행 예약, 쇼핑처럼 답변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기능이 강화됐다. 기존 접점만으로는 만들지 못했던 사용 경험을 모델과 에이전트 기능의 발전이 가능하게 했고, 대규모 사용자 기반은 이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유통망으로 작동했다.
- 메타는 뮤즈의 접점을 별도 앱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뮤즈는 iOS와 안드로이드, 웹에서 제공되고 왓츠앱 안에서도 직접 대화할 수 있다. AI 글래스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사용자가 새로운 AI 서비스를 별도로 찾아가는 대신 이미 사용하는 메신저와 디바이스에서 에이전트를 호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델 간 체감 성능 차이가 낮아질수록 이런 배포력과 호출 빈도가 경쟁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
- 저가 공세는 메타의 사용자 접점 확대 전략을 더욱 강화한다[도표2]. 뮤즈 기본 서비스는 무료이고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20달러와 100달러 요금제가 제공된다. Muse Spark 1.3의 표준 API 가격도 100만 토큰당 입력 1.25달러, 출력 4.25달러로 주요 상위 모델보다 저렴하다. 에이전트는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모델을 여러 차례 호출하기 때문에 토큰 단가 차이가 서비스 운영비 차이로 확대된다. 메타는 기존 오픈AI·앤티트로픽 개발환경과 호환되는 API를 제공해 개발자가 기존 코드를 크게 바꾸지 않고 모델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 에이전틱 AI에서는 기존 생성형 AI보다 사용자의 첫 접점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검색, 비교, 예약, 구매, 문서작성 같은 실제 행동까지 이어진다. 사용자가 어느 에이전트에게 처음 의도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이후 검색과 거래, 외부 서비스 호출의 경로도 결정된다. 에이전트가 사용자 행동의 시작점으로 올라갈수록 최고 성능 경쟁과 함께 사용자를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변수가 된다.
- 아마존의 뮤즈 접근 차단은 사용자 접점을 확보한 에이전트도 실제 행동을 위해서는 기존 플랫폼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뮤즈가 사용자의 쇼핑 의도를 먼저 확보해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하더라도 아마존이 접근을 막으면 실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없다. 아마존은 뮤즈가 사전 허가 없이 자사 플랫폼에 접근했고 에이전트 식별과 개인정보·보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의도를 가져가더라도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가진 플랫폼에 접근해야 행동을 완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외부 에이전트의 접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존 플랫폼의 통제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소비자가 아마존에서 직접 상품을 검색하면 광고와 추천을 거쳐 구매까지 이어지지만, 외부 에이전트가 검색과 비교를 대신하면 소비자가 아마존을 직접 탐색하는 과정은 줄어든다. 아마존처럼 상품과 결제, 계정,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은 외부 에이전트의 접근을 허용할지 여부와 접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첫 접점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구매와 예약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들의 해자가 강화되는 요인이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플랫폼 기업이 자체 에이전트를 사실상 기본 업무도구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9월 25일 공개한 오토파일럿은 사용자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지속형·선제형 에이전트다. 새로운 코파일럿에는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가 직접 통합되고 기존 기업의 계정과 데이터, 업무도구와도 연결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에이전트를 처음부터 기업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용 중인 업무환경 자체를 에이전트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은 모델 자체보다 기업의 업무 접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직원은 윈도우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아웃룩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며 팀즈에서 회의하고 워드·엑셀·파워포인트에서 결과물을 만든다. 기업 데이터와 계정, 권한, 보안체계도 기존 환경에 연결돼 있다. 범용 업무에서 모델 간 체감 성능 차이가 낮아질수록 어떤 모델을 사용하느냐보다 어떤 업무환경에서 에이전트를 호출하느냐가 더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 알파벳과 아마존도 에이전틱 AI 경쟁에서 강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체 에이전트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 알파벳은 검색과 안드로이드, 워크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제미니를 정보탐색과 모바일, 기업 업무환경 전반에 연결할 수 있다. 아마존도 아마존닷컴과 알렉사, AWS를 기반으로 쇼핑과 가정, 기업용 클라우드에서 자체 에이전트를 확대할 수 있다. 외부 에이전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은 방어력이고 기존 사용자에게 자체 에이전트를 바로 배포할 수 있다는 점은 공격력이다.
- 알파벳과 아마존의 과제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느냐보다 기존 수익모델을 에이전트 중심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느냐에 있다. 제미니가 검색을 대신하고 아마존의 자체 에이전트가 상품 탐색과 선택을 대신하면 기존 검색·쇼핑 광고의 노출 방식도 바뀐다. 검색 트랙백 감소와 광고 자기잠식은 챗GPT 등장 이후 제기돼 왔지만 에이전트가 검색을 넘어 실제 거래까지 맡으면서 변화의 범위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강한 고객 접점을 새로운 광고와 거래 모델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느냐가 기업별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약한 오픈AI와 앤트로픽도 모델 공급자에서 벗어나 직접 실행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오픈AI는 9월 공개한 에이전트 API를 통해 장기 세션과 맥락 관리, 도구 사용, 하위 에이전트 조율, 실행환경까지 직접 제공한다. 앤트로픽도 MCP(Model Context Protocol)와 커넥터를 통해 클로드가 외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고 실제 행동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 기반에 에이전트를 추가한다면 AI 기업은 모델과 브랜드를 출발점으로 실행환경과 생태계를 직접 만드는 방향이다.
- 에이전틱 AI의 확산은 사용자당 추론량을 늘리면서 AI 인프라의 무게중심을 학습에서 추론으로 더 이동시킨다. 일반 생성형 AI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드는 과정이 중심이지만 에이전트는 계획을 세우고 검색하고 결과를 다시 판단하고 외부 도구를 호출한 뒤 실행 결과를 검증한다. 하나의 요청이 여러 차례의 모델 호출과 도구 사용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이용자 증가와 함께 이용자당 컴퓨팅 사용량도 늘어나는 만큼 에이전트의 확산은 추론 수요를 빠르게 키울 수 있다.
- 뮤즈의 흥행은 에이전트가 GPU뿐 아니라 CPU까지 추론 인프라 수요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를 자극하며 관련 반도체주의 상승 촉매가 됐다[도표4]. 9월 21일 메타는 11.4% 상승했고 AMD는 약 10% 올라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넘어섰다. 인텔은 12.2%, Arm은 17%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4.3% 올랐다.
- 추론량 증가는 AI 인프라 수혜를 GPU에서 CPU와 메모리, 네트워크까지 넓힌다. GPU와 가속기는 반복적인 모델 추론을 담당하지만 CPU는 여러 작업과 외부 도구 호출, 데이터 처리와 에이전트 간 조율을 맡는다. 에이전트가 긴 맥락과 작업 이력, 중간 결과를 유지할수록 반복적으로 읽고 유지해야 하는 컨텍스트와 KV 캐시도 커진다. 앤트로픽은 Fable 5.1에서 맥락과 도구 사용이 많은 에이전틱 작업은 캐시 읽기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캐시 읽기 비용을 낮추자 전체 작업비용이 최대 약 4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맥락 접근 자체가 에이전트 운영비의 핵심 요소로 올라오고 있다는 의미다.
- 에이전트가 길고 많은 세션을 동시에 유지할수록 메모리 계층 전반의 중요성도 커진다. 모델 추론 중 즉시 필요한 KV 캐시는 주로 GPU의 HBM 용량을 사용하지만 동시 세션과 컨텍스트 길이가 늘어나면 HBM 용량과 대역폭 부담도 커진다. 장기간 유지되는 상태와 일부 캐시를 CPU에 연결된 DRAM이나 SSD로 이동하고 필요할 때 다시 불러오는 메모리 계층화도 중요해진다. 에이전틱 AI는 GPU 연산량 증가에 더해 HBM과 서버 DRAM, SSD, 네트워크까지 추론 시스템 전체의 자원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 메타 뮤즈가 보여준 변화는 모델 성능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범용 시장에서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차별화가 낮아지면서 경쟁변수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Muse Spark 1.3은 최상위 모델의 절대 성능을 넘어서지 않았지만 낮은 가격과 메타의 대규모 소비자 접점을 활용해 빠르게 이용자를 확보했다. 아마존 사례는 사용자의 첫 접점을 확보해도 실제 행동을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업무환경 자체를 자체 에이전트의 배포망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줬다.
- 범용 에이전틱 AI의 경쟁축은 모델 성능을 넘어 가격과 사용자 접점, 외부 서비스와의 연결 능력을 포함한 플랫폼 경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 소비자와 일반 기업업무에서는 모델 성능이 빠르게 상향 평준화되면서 사용자가 느끼는 차이가 작아질수록 가격과 접근성, 기존 서비스와의 연결이 더 중요한 경쟁변수가 된다. 반면 코딩과 법률, 과학처럼 작은 성능 차이가 생산성과 결과의 차이로 직접 이어지는 전문영역에서는 최고 성능의 가치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다. 에이전틱 AI의 확산은 기존 플랫폼의 가치를 다시 높이는 동시에 AI 인프라 수혜를 GPU에서 CPU·메모리·네트워크까지 넓히는 변화가 될 전망이다.

도표 1. 뮤즈와 최상위 AI 모델의 성능 비교(2026년 9월 말 기준)

평가 항목	Muse Spark 1.3 Max	GPT-6 Astra Max	Claude Fable 5.1 Max	해석
종합 지능지수	48	53	53	뮤즈는 최상위 대비 5점 낮음
장기 지식업무	1,589	1,562	1,662	뮤즈는 Astra보다 높고 Fable보다 낮음
실제 업무 수행	1,703	1,580	1,764	뮤즈의 강점. Astra보다 우위
업무 자동화	58%	68%	59%	Astra가 가장 강함
터미널·도구 활용	33%	59%	52%	뮤즈의 가장 큰 약점
과학 코딩	59%	56%	63%	뮤즈는 Astra보다 높음
최고난도 추론	49%	55%	59%	최상위 모델 대비 열위
지식 정확성·환각 억제	25	43	43	뮤즈의 약점
창문맥 처리	83%	81%	85%	최상위와 큰 차이 없음

자료: Artificial Analysis, 하나증권

도표 2. 성능 격차보다 더 큰 가격 차이

모델	성능지수	입력 / 100만 토큰	출력 / 100만 토큰
Muse Spark 1.3	48	\$1.25	\$4.25
GPT-6 Sol	48	\$2.00	\$10.00
GPT-6 Astra	53	\$10.00	\$50.00
Claude Fable 5.1	53	\$10.00	\$50.00
Claude Sonnet 5	38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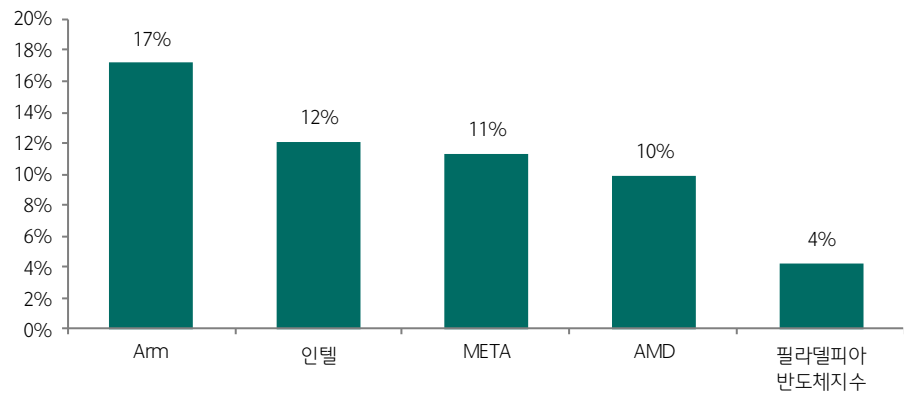
자료: Artificial Analysis, META, Anthropic, 하나증권

도표 3. 사용자 접점과 플랫폼 경쟁력 비교

기업	기존 사용자 접점	에이전틱 AI에서의 강점	핵심 과제
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AI 글래스	대규모 소비자 기반에 뮤즈를 바로 배포	기존 접점을 에이전트 사용으로 전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M365·팀즈·아웃룩	기업 업무환경 자체를 에이전트화	기업 업무 자동화 확대
알파벳	검색·안드로이드·워크스페이스	검색·모바일·업무환경에 제미니 배포	검색·광고모델의 에이전트 전환
아마존	아마존닷컴·알렉사·AWS	쇼핑 플랫폼 접근권 + 자체 에이전트 배포	쇼핑·광고·추천 구조 전환
오픈AI·엔트로픽	챗GPT·클로드	강한 모델·브랜드에서 직접 접점 확대	외부 서비스와의 연결 확대

자료: 하나증권

도표4. 뮤즈 이후 시장이 본 것은 CPU까지 넓어진 추론 인프라



자료: Factset,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743.4	27,068.7	51,828.6	3,888.4	2,476.1
1W (%)	1.2	2.1	0.3	0.3	0.2

주) 9월 25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주(9월 21일~9월 25일) 리뷰: 에이전틱 AI 부각되며 기술주 강세

- 지난주 미국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졌다. 미국증시 3대지수의 주간 수익률은 다우지수 +0.3%, S&P 500 +1.2%, 나스닥 +2.1% 등이다. S&P500 동일가중지수는 -0.2%였다. 시장참여자들은 대형주를 중소형주보다 선호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지수는 한 주 동안 0.8% 하락했다. 성장주로 구성된 ETF(VUG)와 가치주로 구성된 ETF(VTV)의 주간 수익률은 각각 +2.5%, -0.2%다.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심리가 견조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M7로 구성된 ETF(MAGS)는 3.1% 상승했고, M7을 제외한 기업들로 구성된 ETF(XMAG)의 수익률은 1.2%다.
- 높은 금리가 부담이었지만, 주식에 대한 선호는 견조했다. 지난주 미국채 2년물 금리는 2년여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5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서었다. 10년물도 주 후반 5.2%를 웃돌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높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것은 시장이 금리보다 AI 모멘텀과 기업들의 이익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 AI 트레이드는 에이전틱 AI 중심으로 다시 강해졌다. 메타의 '뮤즈'가 에이전틱 AI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AI 수요가 프린터 모델 훈련용 GPU에서 추론, 에이전트, CPU, 메모리, 클라우드 인프라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월요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3% 급등했다. AI의 논리는 GPU를 더 많이 산다보다 AI 서비스가 실제 사용단계로 넘어가면서 연산 수요의 저변이 넓어진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시장 기대를 넘는 결과는 없었다. 미국과 중국은 기존 무역 휴전을 2027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했으나, 정상회담에선 추가적인 대형 무역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시장입장에선 G2의 관세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다시 확대됐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중국의 구매 이행과 구조적인 무역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상승 상위섹터는 정보기술(+3.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2.1%), 헬스케어(+1.7%) 등이고, 하락 상위섹터는 유틸리티(-3.2%), 에너지(-3%), 금융(-1.6%) 등이다. 정보기술은 반도체 강세가 두드러졌다. CPU와 반도체 장비주가 강했으며, 퀄컴도 에이전틱 AI용 스마트폰 칩 발표가 긍정적이었다. 커뮤니케이션은 메타의 강세가 섹터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 헬스케어는 전체 수익률은 시장을 웃돌았지만 섹터 내부 차별화가 컸다. 메드테크와 진단주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바이오는 임상 결과에 따라 종목별 변동성이 확대됐다.
- 유틸리티는 높은 금리가 부담요인이었다. 배당 및 방어주 성격이 강한 유틸리티의 상대 매력력이 약해졌다. 에너지는 유가하락이 부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금융은 증권 및 브로커, 거래소, 데이터 업체 등이 부진했다. 에이전틱 AI가 자산관리 및 브로커리지 등 기존 중개업의 수수료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기도 했다.
- M7 기업은 알파벳(-1.6%)과 아마존(-1.6%)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META +12.9%, MSFT +4.5%, TSLA +2.2%, AAPL +1.5%, NVDA +1.3%). 메타는 뮤즈 덕분에 에이전틱 AI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개편 소식이 있었다. 코딩, 채팅, 에이전트 등을 하나로 묶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개인 에이전트인 'Autopilot'을 발표한 것이 긍정적이었다. 알파벳과 아마존은 에이전틱 AI 등장으로 광고 사업 차질 우려가 부각됐으나, 기우라고 판단한다.

» 이번 주(9월 28일~10월 2일) 프리뷰: Micron 실적, 계속되는 미-이란 갈등, P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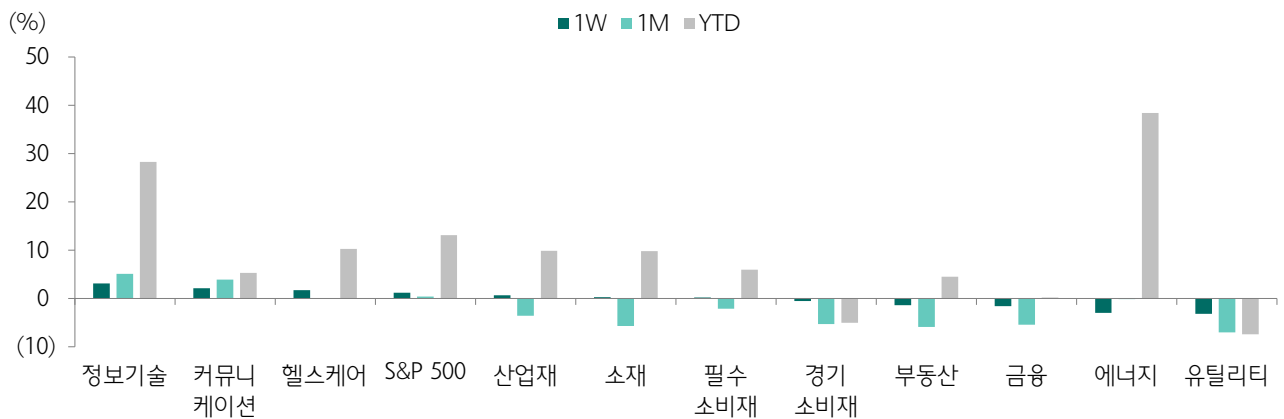
- 이번 주엔 마이크론 실적,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PCE 가격지수, 고용지표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미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지정학적 불안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어 다소 조심스러운 대응이 예상된다.
-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이하 마이크론)의 FY4Q26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 FactSet 기준 매출 컨센서스는 510.7억달러, EPS는 30.97달러로 회사가 제시한 매출 가이드선 500억달러±10억달러의 상단과 비GAAP EPS 가이드선 31달러에 근접해 있다. 회사가 제시한 매출 전망은 전분기 대비 2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매출총이익률 가이드선은 약 86%에 달해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단순한 실적 상회 여부보다 FY1Q27 매출과 마진 가이드선이 현재의 높은 기대치를 다시 넘어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 HBM4를 주요 고객 플랫폼에 대량 출하하기 시작했다. 복수의 고객에게 인증용 샘플도 공급했다고도 밝혔다. HBM4E는 2027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Meta의 Muse와 Anthropic-Akamai 계약 이후 AI 투자 논리가 프런티어 모델 훈련용 GPU에서 추론과 에이전트, CPU-메모리-스토리지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HBM4 출하 속도뿐 아니라 서버 DRAM과 NAND 수요 전망도 중요할 것이다. 마이크론이 데이터센터 메모리 수요와 가격 전망을 추가로 높인다면 지난주 반도체 강세를 이어갈 여지가 있다.
- 8월 PCE물가지수도 중요한 이벤트다.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4%로 예상돼 이전치보다 물가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인소비는 전월 대비 +0.4%, 개인소득은 +0.5%가 예상되며 2분기 GDP 확정치는 연율 +1.5% 전망이다. 지난주 강한 PMI와 매패적인 연준 발언이 겹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5.2% 수준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PCE가 예상치를 웃돌 경우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장기금리 상승이 다시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될 경우 지난주 급등한 금리가 일부 되돌려질 수 있어 Micron 실적과 같은 날 발표되는 PCE가 반도체 주가 반응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 9월 고용보고서는 다음 주 후반의 핵심 이벤트다. 비농업 고용은 +9만명으로 전월 +16.2만명에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4.1%로 유지될 전망이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 대비 +0.3%가 예상된다. 이에 앞서 29일 발표되는 8월 JOLTS 구인건수는 727.1만건에서 715만건으로 감소할 전망이고 30일 ADP 민간고용은 +6만명으로 예상된다. 고용 증가가 완만하게 둔화하면서 임금도 안정되면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될 수 있지만, 고용과 임금이 다시 강하게 나오면 높은 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다.
- 미국과 이란의 갈등도 시장의 관심사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적 압박과 경제 봉쇄를 완화할 경우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핵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은 현재 공식적인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며, 미국 측에서도 중재자를 통한 접촉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주에는 미국이 수정안을 제시하는지, 협상이 다시 교착되는지, 군사행동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주요 지표 및 이벤트로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 29일 7월 FHFA 주택가격지수 / 9월 소비자신뢰지수(예상 89.6, 이전 89.4) / 8월 JOLTS 구인건수(예상 715만건, 이전 727.1만건), 30일 9월 ADP 민간고용(예상 +6만명, 이전 +3.8만명) / 2분기 GDP 확정치(예상 +1.5%) / 8월 근원 PCE MoM(예상 +0.3%)·YoY(예상 +3.4%) / 개인소비(예상 +0.4%) / 개인소득(예상 +0.5%) / 9월 시카고 PMI(예상 53.2), 1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 9월 S&P Global 제조업 PMI 확정치 / 8월 건설지출 / 9월 ISM 제조업지수(예상 55.0), 2일 9월 비농업 고용(예상 +9만명) / 실업률(예상 4.1%) / 시간당 평균임금 MoM(예상 +0.3%) / 8월 공장주문 등이 있다.
-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집중된다. 28일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인공지능과 신기술을 주제로 연설하고 보우먼 금융감독 부의장도 발언한다. 29일에는 보우먼 부의장, 바 연준 이사, 월러 연준 이사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바 이사는 경제전망을 주제로 연설한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같은 날 공개행사에서 발언한다. 30일에는 쿡 이사, 1일에는 월러 이사 / 제퍼슨 연준 부의장 / 보우먼 부의장 / 쿡 이사가 연설하며 제퍼슨 부의장의 주제는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이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주요 기업으로는 29일 Carnival(CCL), 30일 Jabil(JBL), FactSet(FDS), Micron Technology(MU), Progress Software(PRG), 1일 Accenture(ACN), Acuity(AI), Nike(NKE) 등이 있다. 시장 영향도는 Micron이 가장 크며, 나머지 기업들은 업종별 수요와 기업활동 흐름을 확인하는 일정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9/25)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743.4	0.5	1.2	0.4	5.3	21.6	16.6	13.1
나스닥	미국	27,068.7	0.5	2.1	2.5	7.0	29.2	20.4	16.5
다우	미국	51,828.6	0.9	0.3	-3.2	-0.1	14.7	12.1	7.8
STOXX600	유럽	638.7	0.3	0.5	-2.5	0.4	11.0	15.2	7.8
KOSPI	한국	7,080.9	0.9	5.4	4.3	-15.8	30.2	109.1	68.0
KOSDAQ	한국	844.5	1.2	3.5	0.7	-0.8	-26.0	1.1	-8.8
상해종합지수	중국	3,888.4	-1.2	0.3	-1.6	-3.4	-0.6	1.6	-2.0
심천종합지수	중국	2,476.1	-2.0	0.2	-2.9	-11.1	-4.0	0.2	-2.2
항테크지수	홍콩	24,510.1	-1.0	-1.0	-4.2	8.1	-1.8	-6.2	-4.4
TOPIX	일본	4,128.6	1.3	2.3	-0.4	4.2	13.1	29.5	21.1
니케이 225	일본	66,364.2	1.3	4.5	-0.1	-4.3	24.3	46.3	31.8
니프티 50	인도	23,140.5	0.3	-0.9	-4.3	-3.8	1.4	-6.1	-11.4
Vietnam	베트남	1,785.1	0.6	-1.7	-2.6	-4.6	6.7	7.5	0.0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9.25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정보기술: 퀄컴의 에이전틱 AI용 스마트폰 칩 발표 및 AI 에이전트 컴퓨팅 수요 증가 기대감에 CPU, 반도체 장비 중심 강세
- 커뮤니케이션: AI 에이전트의 빠른 소비자 침투로 대형 플랫폼의 AI 수익화 기대감 확산, 섹터 전반 강세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유틸리티: 금리 상승 기조 속 배당, 방어주로서의 상대적 매력이 약화되며 약세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9/22	아마존, 메타 AI 쇼핑 에이전트 '뮤즈' 차단...이용약관 위반 팝업 표시 아마존이 메타의 AI 에이전트 뮤즈가 자사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쇼핑하는 것을 차단. 메타가 아마존의 제거 요청을 거부하자 지난 일요일 밤부터 차단 조치를 시행했으며, 뮤즈 이용자에게 이용약관 위반 팝업이 표시됨. 아마존은 제3자 쇼핑 자동화 도구에 대해 사전 동의(옵트인)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 현재는 소비자 대부분이 봇을 구매보다 제품 조사에 활용하고 있어 매출 영향은 제한적이나, AI 에이전트 쇼핑이 본격화될 경우 아마존의 매출과 광고 수익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 아마존은 지난해 퍼플렉시티 AI를 상대로도 유사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9/22	구글, 조지아주 원전 2곳 출력 증강에 96MW 추가 전력 확보 구글이 조지아주 보그틀-해치 원전의 출력 증강 작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 약 96MW 규모의 신규 전력 공급이 추가될 전망으로 규제 당국 승인이 전제 조건. 조지아파워는 이번 계약이 일반 가정 및 산업용 고객에게 설비 개선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AI 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한 것으로, 기존 원전 업데이트는 신규 건설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완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9/23	메타 '뮤즈' 흥행에 AI 투자 중심축 B2C로 이동 메타 뮤즈가 출시 2주 만에 글로벌 다운로드 250만 건을 돌파하며 클로드, 제미니의 초기 성장세를 넘어섰으며 iOS 기준으로는 초창기 챗GPT 기록도 제침. JP모건은 "챗GPT 이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될 소비자용 AI 앱"으로 평가했으며, UBS는 "AI 투자 흐름의 주도권이 B2B 인프라에서 B2C 에이전트 서비스로 이동했다"고 분석. 모건스탠리는 뮤즈가 겨냥하는 소비자 지출 시장을 약 30조 달러로 추산
9/23	팔로알토, 엔트로픽·오픈AI AI 모델 활용한 사이버보안 서비스 출시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미토스 5와 오픈AI의 GPT-5.6-사이버 등을 활용한 기업용 사이버보안 서비스 '유닛 42 컨티뉴어스 프런티어 AI 디펜스'를 출시. 웹 애플리케이션, API, 클라우드 인프라를 지속 점검해 취약점과 잠재적 공격 경로를 파악하고 코드 수준의 수정 방안도 제공. 해커들이 AI를 활용한 공격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방어 체계에도 AI를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의 일환
9/23	中, 국유 데이터센터 브로드컴 스위치 전수 조사...AI 국산화 박차 중국 국자위가 국유 데이터센터 내 브로드컴 스위치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 중이라고 FT가 보도. 조사 결과 국유 데이터센터 내 브로드컴 스위치 점유율이 최대 9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당국은 브로드컴의 끼워팔기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도 함께 조사 중. 엔비디아 제품이 이미 국유 데이터센터에서 퇴출된 데 이어 브로드컴 스위치로 조사가 확대되는 흐름으로, 향후 신규 도입 시 화웨이 등 국산 장비 비중을 높이는 비공식 지침이 하달될 가능성도 제기
9/24	메타, AI 에이전트 뮤즈 전용 기기 '뮤즈 참'·VR 글라스 공개 저커버그 CEO가 메타 커넥트에서 뮤즈 전용 기기 '뮤즈 참'과 1,299달러짜리 VR 글라스를 공개. 뮤즈 참은 약 2인치 OLED 화면과 5G 모뎀을 탑재한 손바닥 크기 기기, 스마트폰 없이 음성으로 뮤즈 AI와 바로 대화 가능. 12월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스마트워치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 VR 글라스는 기존 퀘스트보다 얇고 가벼운 안경 형태로 내년 봄 출시 예정
9/25	오라클, 뉴멕시코 AI 데이터센터 '불가항력' 통보 오라클이 뉴멕시코주에 건설 중인 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주피터'의 전력 확보 지연을 이유로 블루아울 산하 개발사에 불가항력을 통보했다고 로이터가 보도. 임대차 계약 해지가 아닌 2028년 가동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지금을 미루려는 목적으로, 오라클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힘. 프로젝트 주피터는 180억 달러 대출을 확보했으며 오픈AI에 AI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 위한 스타게이트 사업의 일환. 천연가스 배관 건설 지연과 환경 허가 관련 법적 분쟁 등으로 차질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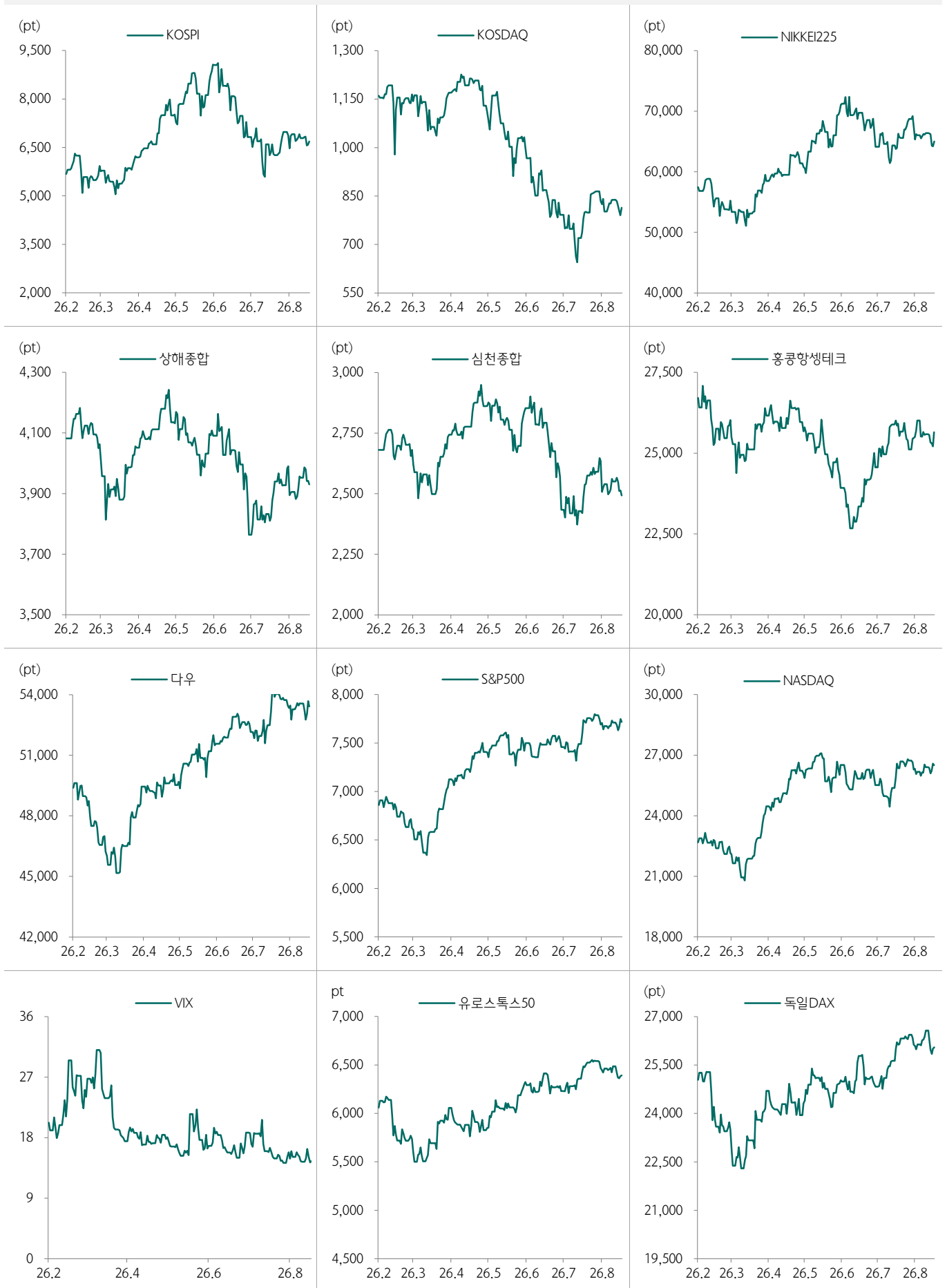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10월)

일	화	수	목	금
9/28	29	30	10/1	2
	CCL KMX	MU JBL FDS PRGS	NKE ACN AYI	
5	6	7	8	9
	STZ		PEP PGR	BLK DAL
12	13	14	15	16
	JPM JNJ UNH GS WFG C DPZ	ASML BAC MS	SCHW BX PLD FCX	
19	20	21	22	23
FITB STLD	GE PM NFLX VZ ISRG GM UAL HAL	LRCX IBM T DHR CME ELV KMI LUV	INTC MA PG LIN NEM HON SHOP MCD WDC	XOM ABBV CVX AXP
26	27	28	29	30
WELL CDNS NUE	GOOGL MSFT KO RTX TXN LMT MMM PYPL	META TSLA GEV TMO KLAC STX BA NOW	AAPL AMZN LLY MRK UBER MRNA SBUX PWR	REGN CL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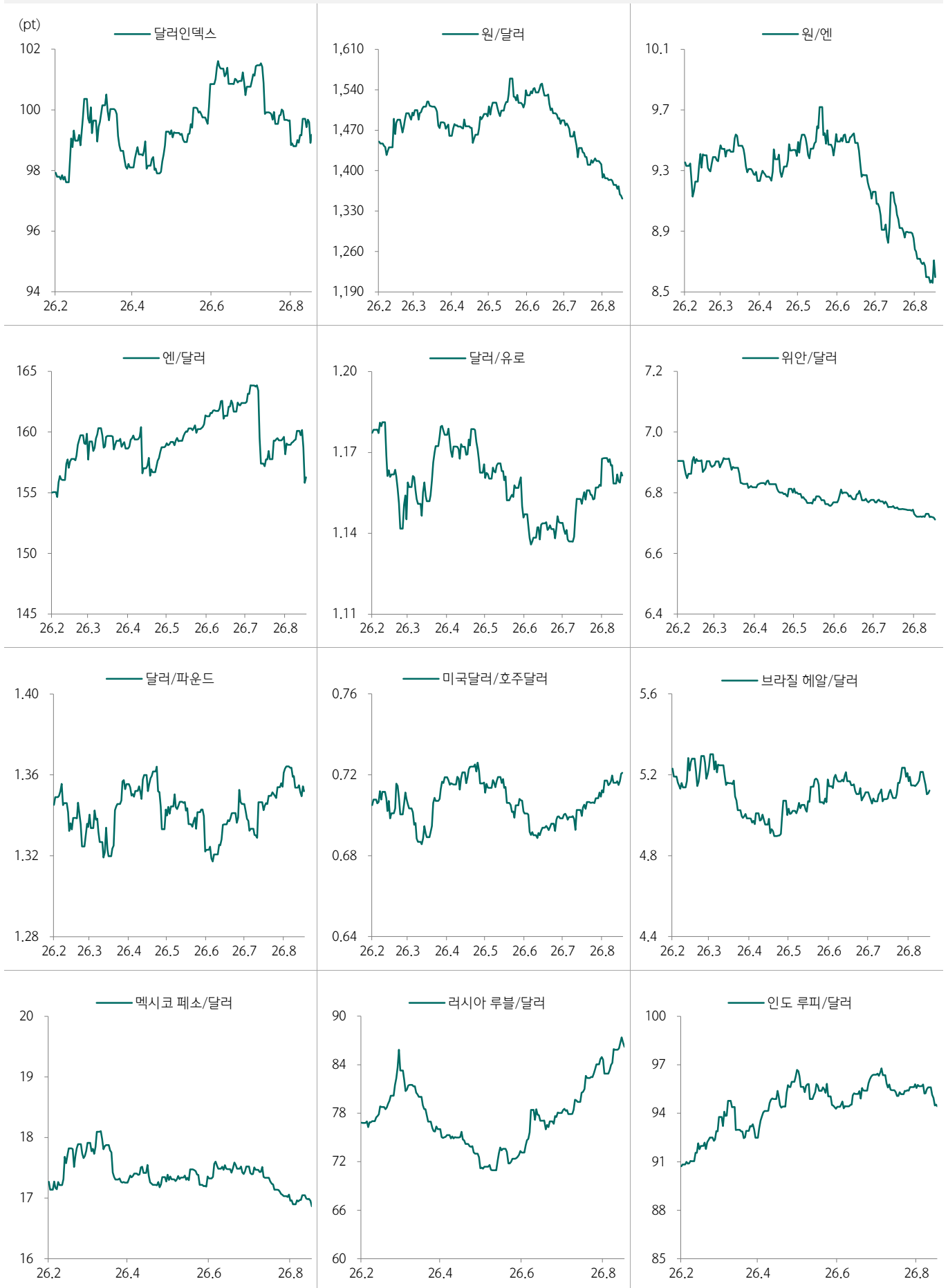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9/29(화)	7월 S&P/CS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YoY 이전 2.1%) 9월 CB 소비자신뢰지수 (이전 89.4) 8월 미국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 (이전 7.271M)
9/30(수)	8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9월) -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MoM/YoY) (8월) - GDP (QoQ) (2분기) - 개인소비지출 물가 지수 (MoM/YoY) (8월)
10/1(목)	-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9월) - ISM 제조업구매자지수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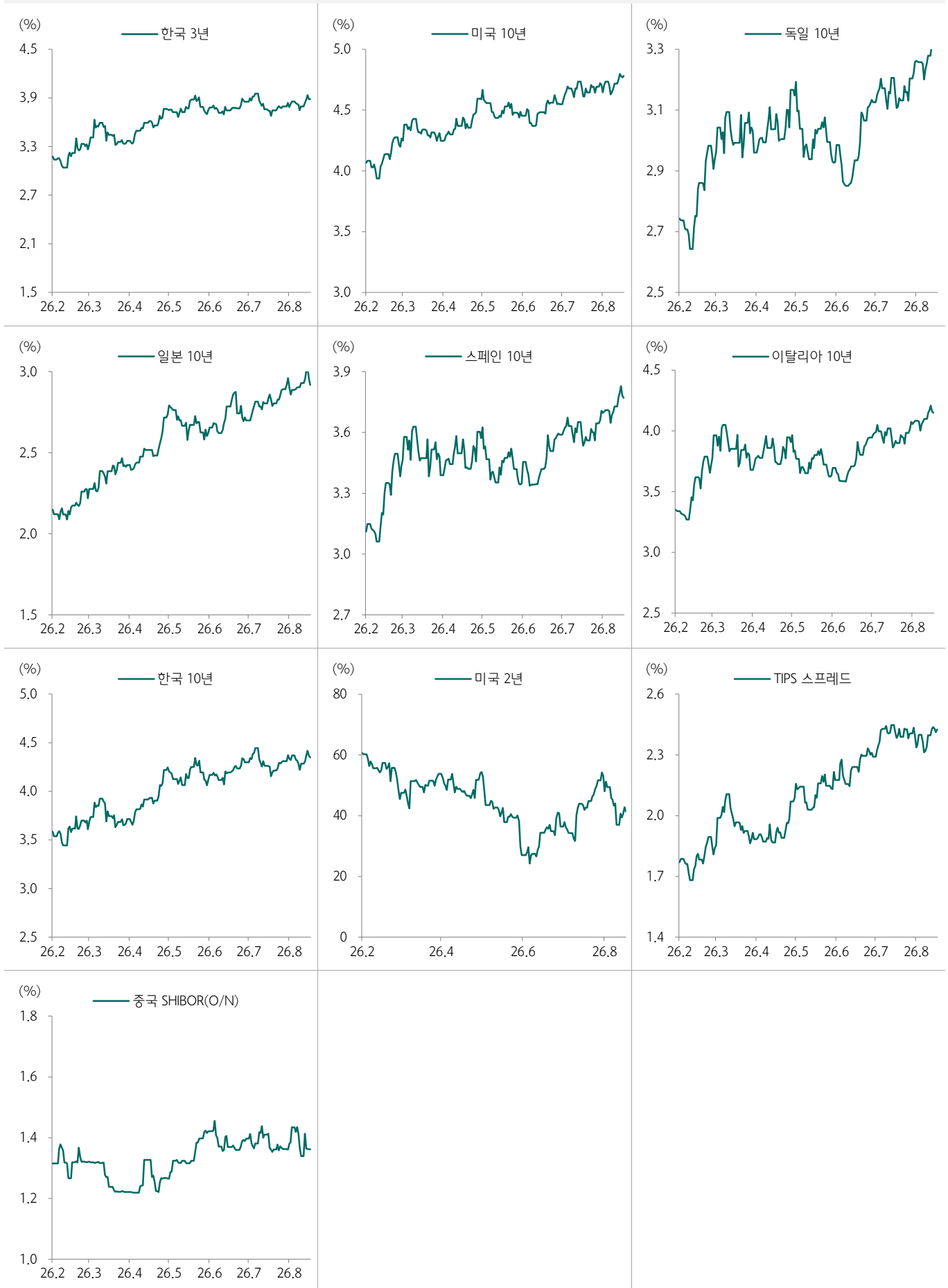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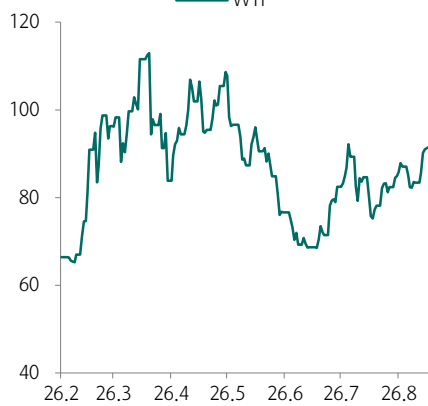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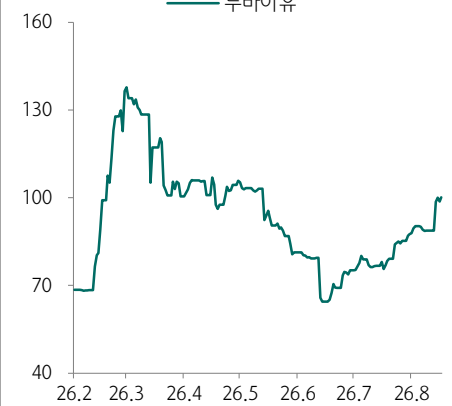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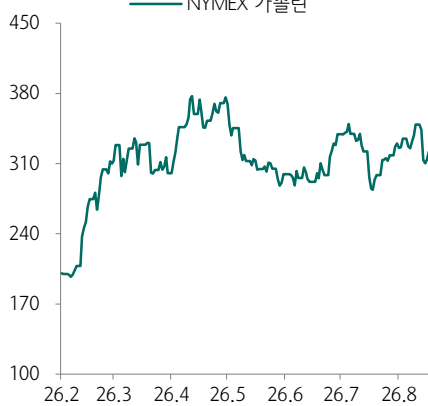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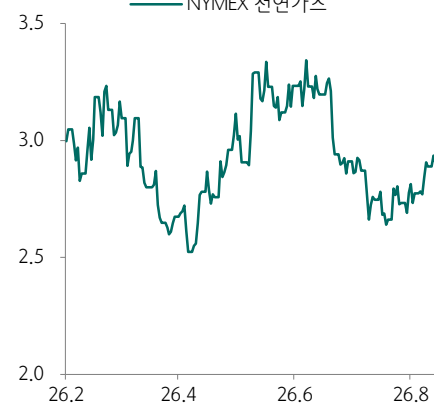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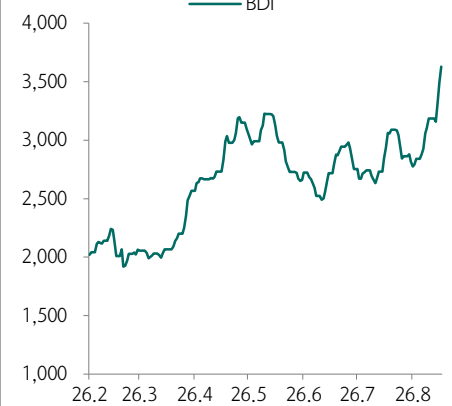
(달러/배럴)



(달러/MB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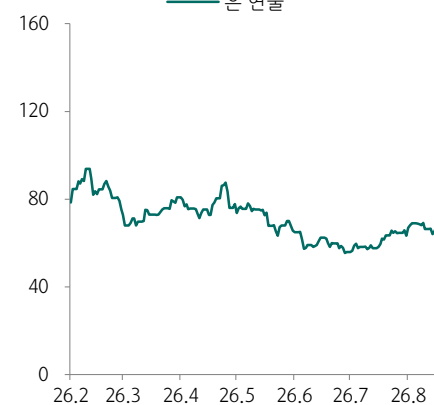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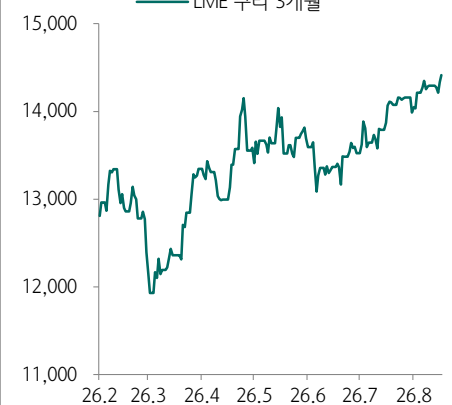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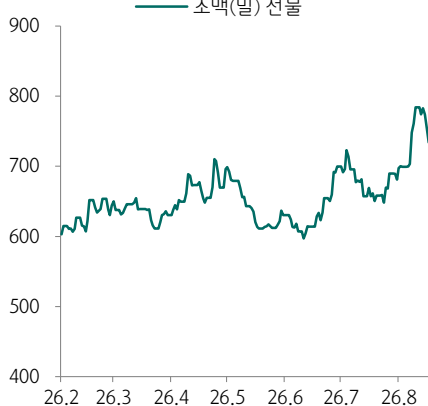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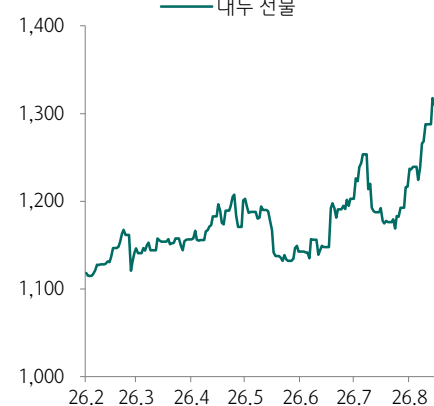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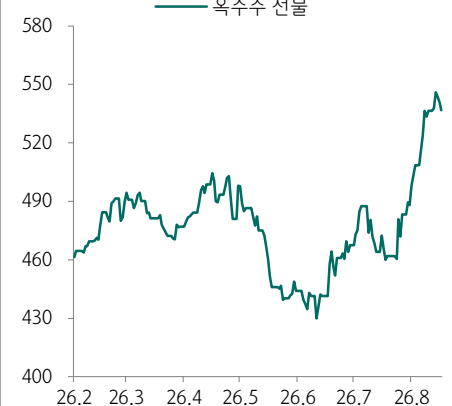
(센트/부셀)



(센트/부셀)



(센트/부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9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